

《삼인삼색 미학 오디세이》

‘미학’의 대중화... 만화로 재해석·재창조하다
‘교양만화의 새 지평 여는 계기’ 기대



기획을 맡은 휴머니스트 한상준 편집주간

교양예술서론 드물게 50만부 이상 팔려나간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는 한때 대학생 필독서로 이름을 떨쳤다. 미학이나 예술이 일반 독자들의 관심 있는 화두가 된 것이 십년 남짓하다는 것을 염두하면 《미학 오디세이》는 그 경향을 이끈 중심축에 속한다. 1994년 초 판 발행 이후 책의 판권이 2003년 출판사 휴머니스트로 옮겨 가면서 각 서점에 개정 완결판이 등장하게 된다.

2000년 이후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미학 관련서들 역시 쏟아져 나와 《미학 오디세이》가 독자들의 입에 새롭게 회자된다는 게 새삼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훌륭한 원작의 미덕은 쉽게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 출간된 《삼인삼색 미학 오디세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판형과 친근한 만화 캐릭터의 표지, 그리고 작업에 참여한 현대

준, 이우일, 김태권 세 명의 만화 작가 이름까지. 기존의 《미학 오디세이》 독자들은 반가움과 호기심으로 책장에 손을 뻗을 법하다. 제목 그대로 3인 3색의 독특한 캐릭터가 돋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어쩌면 기획단계에서 예감한 부분인지도 모를 일이다.

‘미학’의 전문성, 흡인력 있는 문체·구성으로 소개

기획을 맡은 휴머니스트 한상준 편집주간은 《삼인삼색 미학 오디세이》를 일컬어 “웰 메이드 교양만화”라고 했다. 청소년, 역사, 인문, 초등교양, 교양만화 다섯 개의 라인업을 갖추고 활발하게 출간을 진행하는 휴머니스트 출판사는 한상준 주간이 담당한 교양만화 파트에서 이번 책 《삼인 삼색 미학 오디세이》를 기획, 출간했다.

“교양의 건강한 대중화로써 만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적당한 원작을 찾던 중 휴머니스트로 판권이 넘어 온 《미학 오디세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책의 인지도와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이만큼 적합한 책이 없었어요.”

인문서로는 50만 부 이상 판매됐다는 수치적 성과 뿐 아니라 ‘90년대를 빛낸 100권의 책’으로 선정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미학’이라는 전문 분야를 흡인력 있는 문체와 구성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교양부문 도서에서는 대표라고 생각했다”는 한 주간자의 말은 그저 의례적 자랑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결국 《미학 오디세이》를 만화로 ‘재해석, 재창조’하는 일은 여러모로 충분한 의미를 가득 안았다.

삼인 삼색의 작가들...나름의 매력 담은 책

만화로 재발간하는 작업은 원작가 진중권 씨의 흔쾌한 동의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문제는 원작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만화작가를 찾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른 작가는 만화가 이우일 씨. 한상준 주간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기도 했고 《노빈손 시리즈》라는 학습만화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점도 장점이었다. 하지만 기획자의 아이디어는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는 법. 어차피 시대별로 구성된 세 권의 원작을 삼인의 독특한 작가별로 그 매력을 담아 내보내는 게 어떨까 생각했다. 컨셉트에 맞는 작가는 생각보다 쉽게 만날 수 있었다.

1권을 맡게 된 만화가 현대준 씨, 이우일 작가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뽕랄라 대항진》이라는 만화를 통해 ‘키치’ 장르를 선도해 온 현 작가는 발랄한 사고와 거침없는 입말체를 그림에 직접 써 넣어 자신



만의 독특한 작품을 완성했다. “미학의 ‘미’ 자도 모른다”던 현태준 씨는 제안을 수락하면서 ‘원작 소화’ 작업에 돌입했다.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원작자 진중 권씨의 개인교습을 세 차례나 받는 성의를 보였다.

2권 이우일 씨는 가장 먼저 섭외제안이 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제안을 수락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미술학도였지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미학은 미학 오디세이에서 배웠다”고 할 만큼 원작에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기본에 충실한, 내용 전달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됐다.

3권은 《십자군 이야기》라는 책을 그린 김태권 씨. 한상준 주간은 “국내에 십자군 전쟁을 정면으로 다룬 책이 없었는데 그것을 만화작업으로 풀어냈다는 점 때문에 예전부터 관심있게 지켜본 작가였다”고 밝혔다. 풍자를 섞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솜씨가 매력적이었다고 평한다. 거기다 김태권 씨는 미학과 출신이기도 해 ‘삼색’의 마무리를 해 줄 작가로 최종 낙점 됐다.

‘철학적 사유·사고 확장 기회 제공’…

만화에 대한 선입견 불식시킬터

“원작이 각 권별 시대별 팀이 있기 때문에 세 명의 작가가 작업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지만 역시 만화로 연결 부분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게 마지막까지도 큰 고민거리였어요. 만화 작가들의 개성이 워낙 확연하게 달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만도 A4 30페이지 분량만큼 있었죠.”

최종 해결책은 정보 페이지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사실 만화로 표현되긴 했지만 《미학 오디세이》는 여느 학습만화들의 특징처럼 텍스트가 많은 편이다. 특히 각 권별 작가들의 특징이 버무려져 구성과 표현의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텍스트 분량도 특징에 포함되어 버렸다. 그래서 1권 현태준 작가가 슬쩍(?) 삭제 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도 “만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유도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덕분에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점이라 한다.

《삼인삼색 미학 오디세이》가 갖는 가장 큰 의의와 목적이라면 ‘철학적 사유와 사고 확장의 기회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만화라는 장르가 접근은 용이하지만 지금 학습만화의 폐해로 인해 교양만화에 대한 좋지않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대형 출판사에서 기초 학문 분야를 독자들의 접근이 쉽도록 새롭게 만들어 기반을 다져놓기를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휴머니스트가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번 책 역시 그런 목적을 갖고 출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독자층을 청소년들까지 포함해 넓게 생각한 것도 교양만화의 장점이 올바르게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학 오디세이》를 읽었던 대학생과 30대 초반 독자는 재해석된 새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사실 한상준 주간이 밝힌 바처럼 학습만화의 날림 출간이 속출한 탓에 《삼인삼색 미학 오디세이》가 출간됐을 당시에도 독자들의 비판 섞인 소리가 있었다. 잘 알려진 작가들의 조합이 ‘기획의 힘’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화는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또 만화가 큰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은 “앞으로 출간 될 휴머니스트 교양만화를 통해 트렌드를 좇기보다 크고 넓고 멀리 보는 기획임을 입증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편집에도 많은 공… ‘학습만화 독주, 극복하는 계기’

“솔직히 1권 작업 시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조금 원망스러워요 (웃음). 현태준 작가는 자신만의 크리에이티브를 중히 여기는 타입이죠. 재창조 작업이라는 말을 가장 강조한 작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재미 요소가 강하죠. 이우일 작가는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 편집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의욕적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는 한편, 편집자의 아이디어를 잘 반영해 적절히 표현해 줬습니다. 김태권 작가는 치밀하고 꼼꼼합니다. 독자의 시선이 흘러가는 시간까지 계산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휴머니스트는 만화 작가 발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락성에만 초점을 둔 만화가 아닌, 향수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창작만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현재 휴머니스트 작가들이 대부분 검증받은 작가들이죠. 제대로 된 만화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도 작가 발굴은 필요합니다. 창작이 살아야 작가들도 많이 생겨 나겠죠. 학습만화만 붐을 이루는 트렌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결책 마련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

취재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